

‘현전(現前)의 시’: 휘트먼과 그림, 민주주의*

정은귀

차례

- I. 들어가며
- II. 대담한 장면들: 휘트먼과 밀레
- III. 몸과 재현: 휘트먼과 쿠르베
- IV. 경험의 동시성과 민주주의
- V. 글을 나가며

I. 들어가며

휘트먼 비평사에서 당대 문화와의 접촉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한 1990년대 이후부터 휘트먼이 당대의 시각 예술과 주고받은 영향 관계는 꾸준히 흥미로운 논제가 되어왔다. 그 중 1992년 제프리 쉴(Geoffrey M. Sill)과 타벨(Roberta K. Tarbell)이 함께 편집한 『윌트 휘트먼과 시각 예술』(*Walt Whitman and Visual Arts*)은 다양한 평자들이 전기적 관점에서 휘트먼의 생애를 자상하게 들여다보면서 시인이 당대의 시각 예술로부터 받은 영향과 이후 미국 예술사에 미친 영향 등을 조명한 의미 있는 책이다.¹⁾ 이 책은 20세기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임.

1) 영미권에서 휘트먼과 시각예술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책으로 나온 게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전히 최근의 일로 기억되는 것은 쉴과 타벨 이후로 두드러지는 비평이 없었던 이유도 크다. 국내 연구 또한 지극히 최근에 와서 몇몇 소수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기에 휘트먼과 반 고흐의 관계를 조명하는 조규택의 논문과 휘트먼과 토마스 에이킨스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심진호의 학회 발표 글 정도가 있을 뿐이다. 휘트먼 당대의 문화, 특히 시각예술에 대한 휘트먼의 지대한 관심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한다.

모더니즘 전통의 신비평이 신비화했던 휘트먼을 탈신비화하려는 대부분의 문화연구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책이 출간된 시점 또한 휘트먼을 문화사적으로 재 발굴하려는 시도가 가장 활발하던 때였다. 전기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휘트먼 주변을 둘러싼 당대 문화를 잘 들여다보게 하는 시선의 변화는 휘트먼이라는 대시인을 당대의 문화적 지평에서 뚝 떨어진 방식으로 하나의 신비로운 기원으로 자리 매김한 과거 비평 전통을 현실화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연구서가 비평서로서 제 몫을 하려면 휘트먼과 당대 문화와의 접점을 포착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휘트먼의 시가 어떤 방식으로 당대의 문화와 시각 예술을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작품론을 통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휘트먼과 미국 문화의 관계를 조명하는 시도가 휘트먼의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살피고 읽어내는 작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휘트먼 비평을 둘러싼 논의의 저변을 소재적으로 확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쉘과 타벨의 작업은 딱 그 지점에서 멈춰 서 있다. 휘트먼의 시가 당대의 시각예술과 주고받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쉘과 타벨의 책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논의는 드물다. 문화사적 연구가 갖는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쉘과 타벨의 작업은 90년대 이후 휘트먼 비평사에서 특히 활발해진 문화 비평이 휘트먼을 포섭하는 한편 그의 시를 확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²⁾ 본 논문은 쉘과 타벨이 머뭇거린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휘트먼을 둘러싼 주변적 정황을 짚고 출판과 개작을 둘러싼 전기적 상황이 당대의 시각 예술과 어떤 접점을 구축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휘트먼 시에서 두드러진 언어적, 형식적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당대 시각 예술의 시적 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그 내적 리듬을 갈파하여 의미 있는 시 읽기로 나아가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평자들이 휘트먼 시의 특징을 ‘팽창’(expansion)의 시학이라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열거

2) 실제로 쉘과 타벨의 책에서, 그리고 휘트먼과 당대 예술의 관계를 재조명한 보한(Ruth L. Bohan)의 2006년 저서에서도 휘트먼과 그의 시대가 되살아난 반면 그의 시는 논의에서 저변으로 밀려나 실종되다시피 한 걸 알 수 있다. 레놀즈(David Reynolds)가 주도적으로 이끈 문화 연구에서도 시각 예술과의 관련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enumeration)나 반복(repetition)을 이용, 풍경을 ‘펼쳐 보이는’ 방법론을 일컫는다. 이러한 형식적 실험들이 휘트먼의 민주주의 시론에 적합한 언어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표면적으로 언급되었던 휘트먼과 시각 예술의 관계를 시의 형식과 면밀히 연결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직업의 노래」 (“A Song for Occupations”)와 「나는 전율하는 몸을 노래하네」 (“I Sing the Body Electric”) 등의 시들을 당대 미국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친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와 쿠르베(Jean-Désiré Gustave Courbet, 1819-1877)의 그림들과 함께 읽고자 한다. 시와 그림을 겹쳐 읽는 시도는 시와 문화, 시와 다른 예술의 영향관계에 주목하는 한편 열거와 반복, ‘목록나열’(cataloging) 등을 내세우는 휘트먼 시의 독특한 내적 리듬을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 이 작업은 휘트먼의 민주주의의 시학이 밀레의 그림을 관통하는 이미지와 일치한다고 보는 마이스너(Laura Meixner)의 작업이 시의 주변부를 언급하는 데서 그치고 마는 지점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는 일이 될 것이며,³⁾ 다른 한편으로는 휘트먼의 민주주의 시학이 언어와 색채를 둘러싼 ‘재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시적 발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를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위에 거론한 시들은 휘트먼 시작 과정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그의 민주주의 시학이 당대 예술과 주고받은 영향관계를 논할 때, 특히 시각적 차원의 ‘보여주기’ ‘제시하기’가 휘트먼 특유의 ‘공감’의 시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읽기 사례가 될 것이다.

작품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 글의 제목으로 삼은 ‘현전의 시’라는 말이 품은 함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전’(現前·presence)은 ‘눈앞에 나타나 있음’을 일컫는다. 휘트먼의 시적/언어적 실험이 시각 매체를 통과하여 나온 형식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필자는 이 말에 주목했는데, 이 말에 내포된 철학적 논의의 무게를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⁴⁾ 휘트

3) 썰과 타벨의 저서에서 돋보이는 필자인 마이스너는 ‘최상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휘트먼과 밀레의 관계에 천착한다. 남북전쟁 직후 대중문화 속에서 이 둘의 위상을 가능하는 마이스너는 급진적 농경주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예술을 이야기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강조된 당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 두 사람을 거론한다(Meixner 47). 흥미로운 지적인데 아쉽게도 작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4) 가령 혹자는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비판했던 후설(Edmund Husserl)의 ‘현전

면의 시를 이야기할 때 흔히 ‘현재의 시’(Poetry of the Present)라는 말도 많이 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시간성이 특히 강조되는 ‘현재’라는 개념과 구분되는 ‘현전’은, 눈앞에 펼쳐서 ‘한 번’에 보여주는 방식이며 시간의 공간화와 연결된다. 이것이 휘트먼 시 방법론의 핵심이며 또 이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시인 휘트먼이 당대 시각 예술과 주고받은 영향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현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휘트먼의 시 구절을 인용한 이유도 바로 그런 차이 때문이다. 하여 ‘현전의 시’라는 말에 내포된 함의는 시각 예술과의 관련 속에서 드러나는 휘트먼의 독특한 시적 방법론이 일차적이다. 일례로 휘트먼은 「그림들」 (“Pictures”)이라는 시에서 자신이 응시한 그림들을 시의 재료로 삼으면서 그림에 드러난 현실의 문제들을 ‘보여주기’와 관련된 미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나열하고 있다.⁵⁾

‘현전의 시’로 휘트먼의 시를 재 정의하면서 말머리에 밝힌 바, 비유나 은유, 레토릭이 아니라 앞에 두어 보여줌으로써 납득하고 설득하는 ‘열린 길’(Open Road) 위에서의 노래, 그것이 바로 휘트먼이 평생 몰두했던 민주주의의 시적 실천이라는 점을 필자는 특히 강조하고자 했다. 글의 뒷부분에서 휘트먼이 미국의 문화 전반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시도한 산문 『민주주의의 전망』

의 현상학’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물론 후설이 정확하게 ‘현전’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데리다가 ‘presence’를 넘어서는 ‘omnipresence’를 이야기할 때 현전은 데리다에게 있어서는 분명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휘트먼 읽기에서 이 두 개념을 양자택일하듯 철학적 틀을 어느 한 쪽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글의 주된 관심사도 아니지만 후설과 데리다를 진자 운동하듯 오가며 사유되는 의미의 길항관계는 좀더 확장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언어를 시각적으로 펼쳐 놓는 휘트먼 시 특유의 형식적 실험이 ‘앞으로 드러나는’ 운동과 리듬의 모양새를 갖춘다는 점에서 ‘현전’(presence), 즉 ‘보여주기’의 시라는 정도로 이 용어를 가지고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휘트먼 읽기에도 후설식의 의미 만들기나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성까지 드러나게 하는 데리다식 읽기까지 포함하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인데, 이 논의는 다른 철학자 가령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나 벤야민(Walter Benjamin)까지 함께 묶어 다른 지면에서 천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언어의 근원적 힘을 신의 말 혹은 아담의 언어처럼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드러내어 사물의 모습을 ‘앞에 드러내는’(現前) 기능에서 찾는다면 휘트먼의 시적 언어 또한 이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 5) 휘트먼의 초기시에 속하는 이 시는 작가본(author's edition)에서 “제외된 시”(Uncollected Poem)로 분류된다(LG 642). 1924년에 최초 소개되고 1927년에 다시 출판되었는데, 1855년 5줄의 초기 버전이 “미출판된 시”(Unpublished Poem)으로 분류된다(LG 678).

(*Democratic Vistas*)을 소환하여 휘트먼 시의 구문적 특이성을 함께 살필 것이다. 질문을 간추리자면, 휘트먼이 당대를 함께 살면서 깊이 감명 받았던 몇몇 화가들이 시도했던 색채와 선의 독특한 특징들이 어떤 방식으로 휘트먼에게서 시적인 구문으로 발화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 글은 휘트먼 특유의 단독적 '개체성'(individuality)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폭력적 융합 없이 자리 잡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갈 것이다. 휘트먼 시의 독특한 형식적 실험을 시각 예술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자상하게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이 글이 그간 휘트먼과 시각 예술의 관계가 평면적으로 논의되던 한계를 뛰어넘어 읽기의 구체성을 더하고자 한다. 이 글의 일차적인 지향점은 그러므로 문화연구가 휘트먼을 초대하여 선보인 당대 시각예술의 활력을 휘트먼의 시 안에서 재확인하는 작업이겠다.

II. 대담한 장면들: 휘트먼과 밀레

휘트먼과 밀레를 이야기하려면 시인과 화가에 대한 당대 미국 대중들의 반응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휘트먼이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밀레는 미국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사실적이면서도 대담하게 묘사한 밀레의 그림이 당시 미국이 표방한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휘트먼은 밀레가 그린 농부-노동자의 이미지가 자신이 표방했던 시의 이상과 맞아 떨어진다고 보았기에 트로벨(Horace Traubel)에게 “『풀잎』은 정말이지 다른 형태의 밀레이다. 윌트 휘트먼이 말로 옮겨놓는 데 성공한 밀레이다”(Traubel 1:71, Meixner 28 재인용)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휘트먼이 당대의 예술적 매체, 특히 그림에 관심이 많았음은 여러 글에서 확인되는 바, 특히 밀레의 그림 <씨 뿌리는 사람>(The Sower, 1850)과 <저녁, 소에게 물 먹이는 농부>(Peasant Watering Her Cow, Evening, 1873-73)은 휘트먼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작품이다. 밀레의 그림을 보고 받은 충격을 트로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휘트먼은 이 두 그림이 밀레 그림의 핵심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자신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고요한 상태로 밀레

의 그림을 홀로 대면하며 오랫동안 그림을 찬찬히 응시했다고 밝힌다(Traubel 3:89, Bohan 77 재인용). 다음 두 그림을 보자.

<밀레, 씨 뿌리는 사람 1850>



<밀레, 저녁, 소에게 물 먹이는 농부, 1863>



등장인물이 많지 않은 밀레의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대담하고 간결한 선과 색채이다. 평온한 농촌 풍경을 뒤로 하고 전면에 도드라지게 내세워진 밀레의 주인공들은 휘트먼이 꼼꼼한 시선으로 포착한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피로한 일상일지언정, 그 자체로 당당하고 일관된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경외감이 화폭에 배어있다. 보한(Ruth L. Bohan)은 노동자를 이처럼 대담하고 선명하게 그리는 밀레의 그림이 휘트먼의 “민주적 감수성”(democratic sensibilities)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79). 「나 자신의 노래」(“Song of Myself”)에서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쓴다는 시의 화자는 밀레의 그림에서 씨를 뿌리는 남자의 차림과 비슷하다. 휘트먼이 밀레에게 느꼈던 경외감이 곧 노동자 계급의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언어화하는 강한 원천이 되었고 이러한 애정과 튼실한 믿음이 시에 깔려 있다고 보한은 본다. <씨 뿌리는 사람>은 실제로 휘트먼이 1855년 초판본 『풀잎』을 출간할 때 자신의 자화상을 은판 사진으로 찍어서 시집 앞에 실은 것과 묘하게 겹쳐진다. 물론 시집 속 시인은 씨 뿌리는 사람의 역동성보다는 여유 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빼딱하게 젖힌 채 멧쟁이 댄디처럼 앞을 응시하고 있다. 밀레의 그림에서 씨를 뿌리는 노동자 남성의 움직임은 훨씬 움직임이 크다. 시인은 이러한 밀레의 농부-노동자에게서 다시는 체험하지 못할 “숭고한 어둠과 생생한 울분”(a sublime murkiness and original pent fury, “Millet’s Pictures—Last Items” PP 927)을 포착했다.

위의 두 그림이 선사하는 단순한 선의 움직임, 선명하고 대담한 색채 구성은 휘트먼 시어의 거침없는 분방함과 잘 맞아 떨어진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기초한 쿠르베의 그림들은 휘트먼의 시에 등장하는 많은 민중들의 호흡과 닮아 있다. 특히 「나는 전율하는 몸을 노래하네」에서 두드러지는 활달한 호흡과 성(sex)의 해방, 젠더 구분의 철폐 등은 휘트먼의 민주주의 시학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예가 된다. 밀레와 쿠르베 등이 선취한 시각적 차원의 민주주의 미학이 휘트먼에 이르러 언어적 차원의 민주주의 시학으로 바뀌는 과정은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이다. 밀레의 그림에서 휘트먼이 특히 주목했던 것은 선과 색채가 대상을 그려내는 방식이었다. 밀레는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인공을 선명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취한다. 앞

의 두 그림과 함께 일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 줍는 여인들>(The Gleaners, 1857)을 생각해보자. 밀레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남은 알곡을 줍는 여인들에 주목한다. 1866년 작 <낮잠>과 함께, 또 밀레의 그림을 따라했다고 알려진 고희의 그림 <(밀레를 따라 그린) 정오의 휴식> (Rest from Work (After Millet), 1890)과 함께 이 그림은 추수가 끝난 들판의 안온한 평화를 그리고 있다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대의 비평가들은 밀레의 작품에 대해 엄청난 당혹감과 거부감을 느꼈다고 한다. 밀레가 세심한 시선을 준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그려내는 방식에 내포된 어떤 불온성을 평자들은 감지했던 것이다. 밀레 당대에 들판에서의 이삭줍기는 최하층 빈민들의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밀레가 신발도 신지 않은 농부의 발을 그림의 전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나, 이삭 줍는 여인네의 구부러진 허리에 얹힌 손을 부각시켜 노동의 고단함을 비추는 작업, 또 앞서 <씨 뿌리는 이>에서 시도한 대담한 색채감 등은 모두 당시 보수적인 미술 평단에서는 가히 불온하게 느껴지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밀레의 그림에 비추어 휘트먼을 읽으면, 휘트먼이 시의 대상으로 삼은 세목들이 바로 밀레식의 미천하고 남루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응시하기 임을 알 수 있다. 응시하기는 자세히 보기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다.

「나 자신의 노래」 15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모습과 노동하는 현장은 눈을 씻고 살펴보아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남루한 존재들에 바치는 헌사이다. 오르간에 맞추어 노래하는 맑은 음성의 가수, 목수가 널을 댈 때 “막 대패의 혀는 제멋대로 올라가는 혀짤배기소리로 휘파람을 불고 있다”(the tongue of his foreplane whistles its wild ascending lisp, LG 41). 힘센 팔로 배를 나아가게 하는 항해사나 조심스레 걷는 오리 사냥꾼, 급행 마차를 모는 젊은이 등 휘트먼은 밀레의 그림에서 대담하게 끌어안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짚고 명징한 서술로 호출한다. 하나의 행이 하나의 직업군을 위해서 마련되며 각각의 행에서 명쾌하고 선언적으로 그리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모습은 밀레 그림에서 포착되는 단독자 주인공들과 닮아 있다.

그렇다면 밀레의 그림에 단독자로서 등장하는 개개인의 위엄과 활력이 깃든 노동하는 현장은 휘트먼의 시어를 통해 전체 민중으로 확대된다는 주장도 가

능하다. 경건하면서도 압도적인 동력이 실린 색채와 선을 구사한 밀레의 그림을 마주한 휘트먼은 거기서 얻은 미적, 정치적 체험을 언어적 발화에서 한층 확대된 형식으로 그 느낌을 살려내고자 한다.⁶⁾ 이러한 언어적 실천은 휘트먼이 평생 몰두한 민주주의의 시적 재현으로서 시의 임무와 닿아 있으며 이는 “부분과 전체”(Each and All)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부분과 전체에 대한 휘트먼의 사유는 많은 경우 서로 상충되는 듯 보이는데, 어떤 구절에서 긍정적인 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부정되고, 단독성이 강조되다가 합일로 달려가는 강렬한 움직임이 작동하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 부분과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휘트먼의 독특한 리듬은 「나 자신의 노래」 15절, 31절, 33절 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각 행에서 부분들 각각의 개체성을 독특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전체의 그림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데, 세목이 나열되는 전체적인 풍경 안에서 그 인식이 가능해지는 점 또한 시각 예술의 색채가 자아내는 마술을 연상하게 한다. 세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휘트먼이 시적으로 선취한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밀레와 같은 급진적인 화가가 드러낸 현실의 잠재성을 언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밀레의 그림과 휘트먼의 시 모두 ‘현전’의 적실성, 즉,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 참석하고 있는 상태”(the fact of being in a particular place: the state of being present)를 민주적, 예술적인 시선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휘트먼은 특히 “진정한 시”(real poems)와 일반적, 관행적인 시와의 구별을 통하여 시선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시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⁷⁾ 어떤 점에서 휘트먼의 시에 드러나는 열거와 반복, 목록

6) 단순히 시각적 차원의 보여주기라 한다면 휘트먼의 동시대 시인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도 이에 못지않다. 물론 롱펠로우의 보여주기는 셉티멜탈한 시각화이며 시의 형식 또한 유럽식 전통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미국의 질료”(Matter of America)는 휘트먼에게서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Dougherty 2). 이에 대해서는 줄고 「함께 말하기: 당대 문화의 안팎에서 휘트먼의 ‘공감’ 다시 읽기」를 참조할 것.

7) 시와 그림, 사진에 대한 관계가 휘트먼에게서 그리 간단하게 처리될 수는 없는 것이 일례로, “우리가 시라 부르는 것은 단지 그림일 뿐”(what we call poems being merely pictures, LG 103)이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진호는 이 구절을 디테일에 대한 휘트먼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증거로 내세우지만,

나열 등 당대 시학에서 낯설기 그지없었던 언어적·형식적 실험은 ‘보기’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언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미학적으로 다양한 재현방식을 시도했던 당대 화가들의 시도에 견주어 휘트먼의 시를 읽는다면 시선이 포착되는 방식,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더욱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이스너는 농부-노동자에 집중한 밀레의 그림 앞에서 취한 듯 오래 머물렀던 휘트먼이 당대 미국 사회가 나아갈 바를 밀레가 그림에서 구현한 이상적인 농경 사회에서 찾았다고 주장하는데(34-6), 그보다는 오히려 앞의 첫 번째 그림에서 드러난 개인의 영웅주의를 적극적으로 당대 민중의 다른 층위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역설했다고 봄이 어떨까.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좀 더 다루어질 것이다. 밀레의 그림 앞에서 경외감을 느낀 나머지, 감히 모자를 쓰고 있을 수 없어 모자를 벗어야만 했던 시인 휘트먼이다. 그 경외감이 당대의 많은 사실주의 화가와 구별되는 밀레 그림의 특징을 포착한 미적 감각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무엇을’ 그리는가(미국의 민중과 미국 대륙 등)가 아니라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그리는 것인가에 대한 시적 방법론에 대한 시인의 고민과 연결된다. 즉, 밀레의 대담한 선과 색채에서 포착되는 민주적 사상을 각각의 개체성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적인 언어로 변환하는 실험을 하면서 휘트먼은 단순히 밀레가 선별했던 농부-노동자라는 시적 대상을 수동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과감하고 단정한 구도와 단순하고 대담한 장면들로 특화되는 밀레의 민중적 정치성을 확장된 언어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한 시도에서 보여주기 즉 ‘현전’의 범주는 무한 확대되어 휘트먼 특유의 팽창(확장 expansion)의 시학으로 나아간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필자가 보기애 이 구절은, 휘트먼이 지향하는 진정한 시와 그냥 일반적인 시를 구별하는 휘트먼의 독특한 시선이 읽혀지는 부분이다. “The real poems, (what we call poems being merely pictures)”의 앞뒤에 휘트먼은 찰나적으로 읽히고 포착되는 순간성의 재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는 시선에 주목한다.

Ⅲ. 몸과 노동: 휘트먼과 쿠르베

밀레가 집중적인 방식으로 대담하게 대상을 포착해 냈다면 휘트먼은 열거와 목록으로 범위를 넓혀 좀 더 많은 풍경을 한꺼번에 전면에 내세운다. 휘트먼의 시어는 그런 점에서 밀레의 미학이 언어적으로 확대된 ‘현전’의 시다. 한편 쿠르베는 휘트먼 시어의 급진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1850년대에 쿠르베는 당대의 민중들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삼아, 혁명에서 봉기하는 민중, 여인의 나체 등을 대담하고 적나라하게 그렸다. 불을 끄기 위해 맹렬한 화염 속으로 돌진하는 소방수, 레슬러, 수영하는 사람 등 당대의 가장 생생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쿠르베는 휘트먼 시에서 시각적 상상력이 극대화된 장면들에서 좋은 비교가 된다.⁸⁾ 쿠르베는 1855년 발표한 ‘사실주의 선언서’(Realist Manifesto)에서 “모든 체제 밖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고대의 예술과 현대의 예술을 연구해왔다”라고 선언한다. 현실에 대한 단편적인 모방을 거부하면서 쿠르베는 “내 시대의 관습과 사상, 외양을 번역하는 위치에 있으려면 화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예술을 만드는 것, 이게 내 목표다”라고 이야기한다(Boime 63 재인용).

화가로서 쿠르베가 새겼던 예술 창작의 원리가 시인으로서 휘트먼의 원리와 통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휘트먼 또한 “문학적, 시적 형식으로 단호하게 내 육체적, 정서적, 윤리적, 지적, 미학적 개성을 충실히 표현하고 발화하려는” 욕망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 방식이 무엇보다 “솔직해야”(candid) 함을 이야기한다(LG 563). 시인으로서의 정체와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역사, 그리고 자신을 “흡수하는 자”(absorber), “표현하는 자”(expresser)로서 되새긴 휘트먼이 쿠르베의 영향을 받았음은 자명해 보인다.⁹⁾ 특히 노동하는 현장과 몸의 재현, 특히 여성의 몸을 재현함에 있어 쿠르베의 시선에 깃든 혁명성은 휘트먼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

8) 『풀잎』 이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들의 시적 체현이라는 마이스너의 관점을 이어 바이엄(Albert Boime)은 쿠르베의 생애와 휘트먼의 생애를 비교 분석하여 『풀잎』을 일종의 쿠르베식 민주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읽고 있다(Boime 53-84).

9) 휘트먼이 당대 프랑스 문화와 예술, 철학에서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엣킬라(Betsy Erkkila)의 1980년 저서를 참조할 것.

다. 다음 두 그림을 보자.

<Gustave Courbet, 체질하는 여인, 1854>



<Gustave Courbet, 샘, 1868>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알곡을 고르고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여인 옆으로 체질하는 여인이 있다. 노동하는 여인과 썸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그린 쿠르베는 여성의 몸에 대한 과감한 시선이 눈길을 끄는 화가인데, 화가로서 쿠르베의 위치가 시인 휘트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구체적인 논의는 그동안 닫혀 있었다. 휘트먼 비평사에서 여성에 대한 재현은 많은 페미니즘 비평가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휘트먼은 여성을 자주 모성과 동일시하였고 여성의 몸 또한 생명의 기원으로서 모태와 일치시켰다. 하지만 노동하는 여인에 대한 휘트먼의 묘사는 빅토리아조 가정의 천사에 머물던 여인, 혹은 성녀 마리아와 창녀로 이분화 되었던 당대의 여성성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면이 있다. 「나는 전율하는 몸을 노래하네」의 다음 구절을 보자.

이것은 여성의 형체
거기서 성스러운 광휘가 나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은 뿌리치지 못할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고
나는 그 숨결에 이끌려, 무력한 기포인 듯, 모든 것이 무너져 나
와 그것만 남네.
책과 예술, 종교와 시간, 눈에 보이는 단단한 땅, 천국이라 생각
되는 것 혹은 지옥이 아닌가 싶은 것들 이제 다 소멸되어
미친 광휘, 제어할 수 없는 새싹들이 거기서 뻗어 나와, 그 반응
또한 통제 불능,
머리털, 가슴, 엉덩이, 구부린 다리, 무심히 떨어뜨린 손, 모두
흩어지고 내 것 또한 흩어지니,
밀물은 썰물을 몰아내고, 썰물은 밀물을 몰아내고, 사랑의 육체
는 부풀어 유쾌하게 옥찢거리고 (중략)

이는 핵심, 어린 아이가 여성에서 태어나고, 남성이 여성에서 탄
생한다.

이는 탄생의 그릇이고 이는 작고 큰 것의 통합이며 동시에 출구.

부끄러워 마라, 여성들이여—그대들의 특권은 다른 이들을 예워

싸고 있고, 그들의 출구이니,
그대들은 육체의 통로, 그대들은 영혼의 통로.

This is the female form,
A divine nimbus exhales from it from head to foot,
It attracts with fierce undeniable attraction,
I am drawn by its breath as if I were no more than a
helpless vapor, all falls aside but myself and it,
Books, art, religion, time, the visible and solid earth, and
what was expected of heaven or fear'd of hell, are now
consumed,
Mad filaments, ungovernable shoots play out of it, the
response likewise ungovernable,
Hair, bosom, hips, bend of legs, negligent falling hands all
diffused, mine too diffused,
Ebb stung by the flow and flow stung by the ebb, love=flesh
swelling and deliciously aching,

This the nucleus—after the child is born of woman, man is
born of woman,

This the bath of birth, this the merge of small and large, and
the outlet again.

Be not ashamed women, your privilege encloses the rest,
and is the exit of the rest,

You are the gates of the body, and you are the gates of the
soul. (LG 96-97)

지극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여체를, 여체의 핵심의, 여체의 아름다움의 근원을 묘사하는 휘트먼의 시선은 앞서 다른 시들에서 그가 재차 반복하는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해방성과 통하는 면이 있다. “미친 광휘, 제어할 수 없는 새싹들이 거기서 뻗어 나와 그 반응 또한 통제 불능, / 머리털, 가슴, 엉덩

이, 구부린 다리, 무심히 떨어뜨린 손, 모두 흠어지고 내 것 또한 흠어지니” 등의 구절은 사랑에 탐닉하는 육체에 대한 실로 생생한 묘사이다. 이처럼 욕망하는 육체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은 쿠르베가 그림을 통해서 선취해 보인 예술가의 역할을 휘트먼이 잘 흡수했기 때문에 힘입은 바 크다.

여기서 휘트먼은 여인의 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남성의 몸, 아기의 몸, 노예의 몸 등 다양한 몸들을 살살이 훑어 내리는 시선으로 사람의 일생을, 육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시화한다. 위에 인용한 이 구절은 휘트먼 시선의 정직함과 대담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여성의 몸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욕망의 주체가 되고 그 욕망의 주체가 발산하는 온갖 방식의 감각들이 전면으로 배치된다. 쿠르베가 당대 민중을 묘사하면서 시도했던 대담함은 한편으로는 혁명의 주체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공을 찾아주는 시선이기도 했다. 또 다양한 군상들을 하나의 화면 위에서 동시 재현하는 파노라마적 시선이기도 하였다. 쿠르베가 대담하게 선과 색으로 그려낸 몸을 휘트먼은 언어적으로 육화하면서 한결 상세하게 몸의 구성구석을 들여다보고 더듬어 감각한다. 이처럼 세밀한 사랑의 시선을 감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몸을 재현하는가 하면 이를 하나로 묶어 퍼레이드(parade)처럼 당대 군상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즐겨 취한다.

다양한 직업군을 하나의 풍경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캔버스가 전면적인 인물풍경화가 되게 하는 쿠르베의 작업은 휘트먼이 미국 각지를 더듬으며 포착해내는 각각의 인간 군상들의 일하는 행위와 닮아 있다. 예를 들어 「직업의 노래」(2013년의 시각에서 보자면 ‘점령’을 위한 노래라고 해도 무방할)에서 무수히 나열되는 직업들에 주목해보자.¹⁰⁾ 시인은 일차적으로는 직업적 위계질

10) 「직업의 노래」는 휘트먼의 『풀잎』의 개작 과정처럼 여러 차례의 탈바꿈을 거친다. 처음 1855년 초판본 『풀잎』에서 이 시는 제목이 주어지지 않은 채였고, 1856년 2판에서는 「우리나라 각 주에서 일하는 남 녀들의 매일의 노동을 그리는 시」(“Poem of the Daily Work of the Workmen and Workwomen of these States”)라는 평범하고 긴 제목이 붙여졌다. 다시 1860년판에는 「민주적인 노래 3」(“Chants Democratic 3”)이라는 제목이, 다시 1867년 판에는 「노동자들에게」(“To Workingmen”), 다시 1871-2년판에는 「직업의 노래」(“Carol of Occupations”) 1881-2년판, 1891-2년판에 이르러 「직업의 노래」(A Song for Occupations)로 바뀌었다. 2013년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강력히 비판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촉발되어 미국을 뒤흔들었던 ‘월가를 점령하라’ 혹은 월가 점령 시

서를 과감히 해체하고, 상위 고하 신분을 막론하고 일하는 행위, 노동 자체의 소중함을 설파하면서 어떤 교환가치로도 환원되지 않는 노동을 찬미한다. 다음 구절들을 보자.

집짓기, 측량하기, 널빤지 톱질하기,
연장질, 유리 만들기, 못 만들기, 통 만들기, 양철지붕 덮기, 지
붕 다시 없기,
배 조립, 갑판 만들기, 생선 절이기, 건널목 옆 도보를 포장하는
것,
펌프, 말뚝 박는 기계, 거대한 기중기, 석탄 가마와 벽돌 가마,
광산과 그 아래 있는 모든 것, 어둠속의 램프, 메아리, 노래들,
어떤 명상, 얼룩 문은 얼굴들을 들여다보는 거대하고 자연스런 생
각들,
제철소, 산 속이나 강 둑 근처 용광로, 석탄 옆 녹는 느낌의 사
람들, 커다란 쇠지레, 금속덩어리, 합금 덩어리, 석회암,
작열하는 용광로, 펄떡이는 용광로, 마침내 녹아버린 바닥의 쇠
덩어리, 압연 공장, 몽툰한 무쇠 막대기, 튼튼하고 깔끔한 모양의
철로의 T자 레일,
석유 작업, 실크 작업, 백연 작업, 설탕 공장, 증기 톱, 위대한 방
앗간과 공장들, 석수,

House-building, measuring, sawing the boards,
Blacksmithing, glass-blowing, nail-making, coopering,
tin-roofing,
shingle-dressing,
Ship-joining, dock-building, fish-curing, flagging of
sidewalks by flaggers,
The pump, the pile-driver, the great derrick, the coal-kiln
and brickkiln,
Coal-mines and all that is down there, the lamps in the

위' (Occupy Wall Street / Occupy Movement) 때 휘트먼의 이 시가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darkness,
 echoes, songs, what meditations, what vast native thoughts
 looking through smutch'd faces,
 Iron-works, forge-fires in the mountains or by
river-banks, men
 around feeling the melt with huge crowbars, lumps of ore,
the
 due combining of ore, limestone, coal,
 The blast-furnace and the puddling-furnace, the loup-lump
at the
 bottom of the melt at last, the rolling-mill, the stumpy bars
 of pig-iron, the strong clean-shaped Trail for railroads,
 Oil-works, silk-works, white-lead-works, the
sugar-house,
 steam-saws, the great mills and factories, (LG 216)

이 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바, 휘트먼은 독특하게도 합성어를 직업 만들어 시에 즐겨 응용했다. 조립된 단어들의 나열을 통해 휘트먼은 사회와 문화, 당대의 다양한 직업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을 완성하는데, 이는 대상의 사실성을 최대한 표면으로 끌어내면서 행동하는 주체의 독창성을 새로운 시어를 통하여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경한 언어의 조합 속에서 독자는 평소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노동하는 행위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에 깃든 잠재적 창의성을 시의 언어로 대면하게 된다. 이 방식은 쿠르베를 위시하여 당대의 사실주의 화가들이 시도했던 나열의 방식과 일견 닮아있다. 동시에 사실의 단순 나열을 넘어서는 현전의 방식이 휘트먼이 구현한 독특한 조어 속에 포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말이 구상에 대한 설명보다 추상적 해석이 휘트먼 읽기에 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다. 휘트먼은 추상보다는 구상을 더 좋아했다. 그림과 사진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휘트먼은 그림도 좋아하지만 사진이 “정직하기”(honest) 때문에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당대의 사실주의 화가이자 사진가 에이킨스(Thomas Eakins)를 밀레를 능가하는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달성한 예술가로 평가한 것도 이와 맥락이 닿는다.¹¹⁾ 이

시행에서 단어의 조어를 통한 언어의 시각화가 보여주는 가능성은 단순한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새로움을 발견, 개척하는 언어로서 시의 힘을 휘트먼이 굳게 믿었다는 점이다(DV 65-6). 시인의 믿음은 사실성과 잠재성 사이를 오가는 시적 언어의 특이성을 더 적극적으로 밝히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¹²⁾

일견 지루해 보일 정도로 계속되는 휘트먼의 ‘열거’는 당대 미국의 일상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노동 현장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작업이었다. 호밀과 옥수수, 쌀을 뿜아 큰 통에 넣어 옮기는 작업들, 부두와 선착장에서 쌓인 것들을 노동자들이 나르는 모습, 어느 누구의 삶에도 해당이 될 법한 다양한 직업군을 한 장면으로 불러 모으면서 휘트먼은 “삶의 빈번한 일상, 상점, 안뜰, 가게, 또는, 공장, / 이 광경들은 밤낮으로 너의 곁에 있어, 일하는 사람!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너의 일상이지! / 거기, 그들이 가장 중요하지”(217)이라고 설과 한다. 결국 휘트먼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응시하는 시선은 바로 당대 미국을 이끌어가던 기층 민중의 현실이었고, 그 다양한 장면들을 단어를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열하여 시각화함으로써 휘트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미국적 민주주의의 시적 실현을 시도했던 것이다.

11) 에이킨스와의 관계에 대해 심진호의 발표 글이 좀 더 자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당대의 화가들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휘트먼 시의 ‘현전’(presence)의 방식을 다루기 때문에 사진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의 논의로 남겨두기로 한다. 에이킨스가 그린 1887년 작 휘트먼의 초상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휘트먼 말년의 분위기를 잘 전달한다. 은은한 색채로 얼굴과 상체 일부만 간단하게 그려낸 그림은 어딘가 알 수 없는 전면을 응시하는 눈길 속에 육체의 기운이 쇠한 노년의 휘트먼을 잘 보여준다. Bohan 118-9 참조.

12) 휘트먼은 사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사실이 전부라고 믿는 리얼리즘의 위험 또한 ‘리얼리즘의 오만함’(arrogance of Realism)이라고 경고한다(DV 66). 이 때 리얼리즘을 리얼리즘으로 옮기는 것은 한국 비평사에서 리얼리즘이 논의되는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사실주의에 좀 더 가까운 리얼리즘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휘트먼 시의 언어적 형식과 시각 예술과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당대 미국 사회를 실감나게 그리는 차원의 리얼리즘적 열망의 발현 정도로 휘트먼의 언어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다.

IV. 경험의 동시성과 민주주의

당대 독자들에게도 다소 낯설게 읽힐 수 있는 휘트먼의 열거 방식이 갖는 특이성에 주목한 평자들은 많다. 그 중 디먹(Wai Chee Dimock)은 휘트먼의 시에서 두드러지는 구문 형식을 휘트먼의 독특한 민주주의 시학과 연결한다. 디먹은 휘트먼의 리듬이 쌓이지 않고, 즉 “퇴적”(sedimentation) 없이 연속적인 사건으로 끝없이 앞으로 나아감을 강조한다. 구문론적으로 분석하면 휘트먼의 시는 “지나온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지 않고 줄어드는 일 없이 항상 현재를 살고 있다”(73)는 것이다. 늘 현재를 산다는 말은 시인의 시선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기준으로 축소되어 그 시간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말이다. 항상 현재를 사는 시선 속에서 시 속의 모든 사건들은 마치 “동시에 존재”(contemporaneous)하는 것처럼 보인다. 연속성(seriality)을 동시성(simultaneity)으로 바꾸는 휘트먼의 독특한 구문은 기억을 “시간의 연장”(temporal extension)이 아닌 “공간적 범주”(spatial latitude)로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시간의 공간적 확장을 통하여 시는 끊임없이 열린 상태가 되고, 끝없는 경험의 지평을 만들어낸다(73). 디먹은 휘트먼 시가 구현하는 “경험의 끝없는 지평들”(its boundless horizons of experience)이야말로 휘트먼의 시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휘트먼의 시가 구현하는 민주적 장으로서의 ‘구문법’(syntax)은 밀레와 쿠르베 등이 색채로 구현했던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현장과 통한다. 경험의 지평이 계속해서 새로 열리는 방식으로 밀레와 쿠르베는 당대 민중의 인물상을 높낮이에 구애되지 않고 그려냈다. 그렇다면 밀레와 쿠르베를 통해 좀 더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휘트먼 시형식의 특이성은 그가 추구했던 민주주의적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문을 바꾸면, 사실을 중시하는 시각 예술과의 관계 안에서 좀 더 풍요롭게 드러나는 휘트먼의 시적 성취는 그가 언어로서 구현하고자 한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밀레와 쿠르베라는 프랑스 화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대답한 나열의 방식이 휘트먼 시의 독창성을 두드러지게 한다면, 휘트먼의 구문적 특이성을 어떻게 미국적 민주주의의 전망과 연

결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전망』(*Democratic Vista*)에서 휘트먼은 “민주주의”와 “미국”은 “변환 가능한”(convertible) 용어라고 밝힌다(DV 4). 앞서 언급한 시들에서 휘트먼이 강조하는 새로운 민주적 주체로서 개인의 모습은 노동하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생생한 인물 군상이면서 동시에 “사랑스런 노동자 하느님”(the loving Laborer)의 시선이 닿아 만들어진 신성한 존재로(“SE” LG 195) 모두 “변환 가능한” 용어로 등장한다. “변환 가능한”은 그 자체로 휘트먼 시의 구문적 특이성을 잘 보여주는데, 어떤 것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놓아도 이상하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없고 상하 관계나 논리적 연결성이 드러나지 않는 현재형의 나열이다. 이를 휘트먼은 개인과 민주주의, 시의 관계로 치환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음 대목을 보자.

우리는 우리 땅, 미국과 미국의 문학, 미학 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주로 역사와 인간에 대하여 또 그것들을 (미(美)적 조건들과 영속적인 법칙들 아래) 묘사하는 것, 혹은 우리의 생김새와 주관적인 연대와 객관적인 것의 표현에 대해 형식을 얻어오는 것, 혹은 발산과 진술로서 말이다. 또 우리들의 조합과 지속, 관점들, 또 국가의 정신과 특징, 매력, 영웅주의, 전쟁, 심지어 자유까지 이것들을 축적하고 기록한 것에서, 결국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절로 모양을 갖추어 영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We see our land, America, her Literature, Esthetics &s., as, substantially, the getting in form, or effusement and statement, of deepest basic elements and loftiest final meanings, of History and Man—and the portrayal, (under the eternal laws and conditions of beauty,) of our own physiognomy, the subjective tie and expression of the objective, as from our own combination, continuation and points of view—and the deposit and record of the national mentality, character, appeals, heroism, war, and even liberties—where these, and all, culminate in native formulation, to be perpetuated... (DV 77)

이 구절은 미국의 문학과 미학이 미국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의 합에서 나와서 그것이 형식을 갖추어 영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임을 선언한다. 저절로 모양을 갖추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미학적 양식으로서 민주주의는 노동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새로움 속에서 매번 더욱 확고해진다. 휘트먼에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노동하는 인간의 새로움은 무엇보다 그 개체의 단독성이 보장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해서 “인간의 단독성”(singleness of man), 단독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내세우는 개인주의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견될 가치가 있다. 휘트먼의 개인주의가 만약 완전한 개인주의를 지향한다면 그 완전함은 단독성인 동시에 그 고유한 가치가 계속 발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그러한 지속성을 휘트먼이 시적 열거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노동의 세목, 노동하는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를 포착하는 시선은 그 지속적인 발견으로 나아가는 시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이 모여진 전체도 단순히 “하나의 전부”(whole)가 아니라 개개의 단독성이 “합쳐진 것”(an aggregate)이라고 휘트먼이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글의 앞에서 제시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이쯤에서 좀 더 명징하게 된다. 즉, “우리의 결합, 연속, 관점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주관적인 연대와 객관의 표현으로서 우리 얼굴의 묘사(지속적인 법과 미의 법칙 아래 있는)”야말로 궁극적으로 가장 숭고한 의미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땅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문학과 미학이, 형상(form)을 계속 얻어나간다는 말이다. 그럴 때, 휘트먼이 지향한 민주주의적 비전은 바로 시의 비전인 것이며, 시의 언어에서 그가 새로 쓰고 또 회복하고자 했던 개체성과 연결된다. 동시에 그 개체 각각에게 평등한 권리를 되찾아주고자 했던 시인으로서의 휘트먼의 신념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변환 가능한”이란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 해보자. 「나 자신의 노래」 10편에서 도망노예를 그리면서 그와 함께 보냈던 며칠을 회상하는 부분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¹³⁾ 이 구절에서 시인은 도망노예와의

13) 이 시에 대해서는 줄고 「함께 말하기: 당대 문화의 안팎에서 휘트먼의 ‘공감’ 다시 읽기」에서 공감의 방식과 기억의 문제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다룬 바 있다. 하지만 디덕의 논의를 그 논문에서 접목시키지는 못했기에 여전히 새로운 질문들과 함께 이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남을 회고하면서 ‘하나의’(a) 도망노예라고 지칭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the) 도망노예라고 이야기한다.

그 도망노예가 우리 집에 와서 문밖에 서 있었지,
그 노예가 움직일 때 장작더미 나뭇가지 딱딱 소리를 나는 들었
지,
부엌의 흔들리는 쪽문을 통해서 난 힘없고 약한 그 사람을 보았
다네,
그래서 나는 그가 앉아있는 통나무계로 가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안심시켰지,
물을 갖고 와 땀에 젖은 몸과 피부 까진 발 씻을 수 있게 목욕통
을 채웠지,
그리곤 내 방을 지나 있는 방을 내주고는 깨끗한 성긴 옷 몇 벌
을 줬어,
두리번거리던 그 눈과 쭈뼛거리던 태도, 너무도 기억이 선명해,
목과 발목에 쓸려 벗겨진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던 것 또
한 기억이 나,
그 사람, 일주일을 내 곁에 머물다 몸이 나아서 북쪽으로 갔지,
식탁에서 내 바로 옆에 앉았는데 내 장총은 한구석에 세
워두고 말야.

The runaway slave came to my house and stopt outside,
I heard his motions crackling the twigs of the woodpile,
Through the swung half-door of the kitchen I saw him
limpsy and weak,
And went where he sat on a log and led him in and assured
him,
And brought water and fill'd a tub for his sweated body and
bruis'd feet,
And gave him a room that enter'd from my own, and gave
him some coarse clean clothes,
And remember perfectly well his revolving eyes and his

awkwardness,

And remember putting plasters on the galls of his neck and ankles;

He staid with me a week before he was recuperated and pass'd north,

I had him sit next me at table, my fire-lock lean'd in the corner. (LG 37-8)

휘트먼 시의 구문론적 특이성이 선취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논하는 디먹은 언어적 관심이 지대한 정치 철학자답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관사의 차이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정관사 'the'는 하나의 전체 집단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의 도망노예를 지칭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도망노예를 환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의 도망 노예가 대체 가능하게 되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마련된다. 이처럼 대체 가능한 '모든' 도망 노예와의 만남이 잠재적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시의 화자가 한 사람의 도망 노예와 함께 보낸 며칠을 특별히 기억하는 그 장면은 "변환 가능한" 역사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Dimock 73).

디먹의 논의를 빌려 오면, 집단적 범주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이 노예는 물론 "문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읽혀지는 존재다. 흥미롭게도 "대체할 수 있음"과 "교환할 수 있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는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체 가능성'은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간주되는 데 말이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은 오히려 대체 가능성, 교환 가능성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휘트먼은 "a"에서 "the"로 변화시키면서 독자들에게 일종의 "부드러운 망각"(tender forgetfulness)을 선사하며, 그 망각이 경험의 동시성과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74). 여기에서 물론 휘트먼의 다른 장면들이 그랬듯이 어떤 사건이 선행되고 누가 앞서고 뒤에 오는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현전의 시'에서는 시간이나 논리의 연속선상에서가 아니라 경험의 동시성 속에서 모든 사건과 인물이 이해되고, 그 동시성으로 하여금 민주적 경험의 시적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V. 글을 나가며

‘현전의 시’라는 말로 휘트먼의 시적 언어의 특이성을 이야기할 때, 이 글은 단순히 당대 시각예술과 휘트먼이 주고받은 영향관계를 따져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몇 예외적인 화가들이 그려 보인 당대의 불온한 민중성이 시인의 독특한 민주주의적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개인 민중의 건강한 노동의 장면을 강건한 정치적 도발성과 함께 드러낸 밀레의 그림이 휘트먼의 시에서 어떻게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되는지, 쿠르베의 과감하고 도발적인 그림이 당대 현실에 대한 탐색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그러한 시선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휘트먼의 독특한 시적 구문으로 발화하였는지를 살피려고 했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휘트먼을 오랫동안 신화화한 읽기에서 그를 해방시키고자 했다. 휘트먼을 탈신비화하여 당대 문화 안에 위치시켜 휘트먼의 시를 새롭게 읽어내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그 과정에서 그간의 문화연구가 상대적으로 소외시켰던 “시 읽기”의 결로 들어가 휘트먼의 시적 실험이 그림에서 색채가 서로 균등한 방식의 “동시성”으로 만들어내는 형식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경험의 동시성을 좀 더 부각시켜 민주적인 실천의 장으로서 휘트먼이 시적인 언어를 확장하는 방식을 시각화하여 보면, 휘트먼의 언어는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는 언어, 그 점에서 ‘현전의 시’가 된다.

이상으로 문학과 예술적 양식을 영속화하려는 열망을 품었던 휘트먼이 당대 문화 및 예술과의 접점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이는 사진에 대한 시인의 관심으로도 이어지는데, 이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던 화가 에이킨스 등과의 관계나, 후대 예술가들에게 미친 휘트먼의 영향 등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휘트먼 시각 예술의 관계를 당대 문화 밖으로 연장하여 20세기 미학과 휘트먼의 관계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하는 과제도 남겨둔다. 휘트먼이 시도한 언어의 시각화가 민주주의의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몇 개의 작품을 통해 들여다 본 이 글이 나아가 20세기 미국 시학이 현대 미술과 주고받은 영향관계 혹은 시적 언어와 문화의 자장이 함께 느껴지는 후속 연구로 이어진다면 그것대로 의미 있는 밑그림이 되리라고 본다.

인 용 문 헌

- 조규택. 「「별이 빛나는 밤」을 통한 휘트먼과 고흐의 예술적 만남」. 『영미어문학』 103 (2012): 17-35.
- 심진호. 「월트 휘트먼의 시각예술: 토마스 에이킨스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세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5 (2011): 23-31.
- 정은귀. 「함께 말하기: 당대 문화의 안팎에서 휘트먼의 '공감' 다시 읽기」. 『영미연구』 28 (2013): 133-60.
- Arc, Jonathan. "Whitman and the Problems of Vernacular." *Breaking Bounds: Whitman and American Cultural Studies*. New York: Oxford UP, 1996. 44-61.
- Bohan, Ruth L. *Looking into Walt Whitman: American Art 1850-1920*.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2006.
- Boime, Albert. "Leaves of Grass and Real Allegory: A Case Study of International Rebellion." Sill and Tarbell. 53-84.
- Donoghue, Denis. *Reading America*. New York: Alfred A. Knopf, 1987.
- Dougherty, James. *Walt Whitman and the Citizen's Ey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93.
- Erkkila, Betsy. *Whitman the Political Poet*. New York: Oxford UP, 1989.
- _____. *Walt Whitman among the French: Poet and Myth*. Princeton: Princeton UP, 1980.
- Holloway, Emory, ed. *The Uncollected Poetry and Prose of Walt Whitman*. 2 vols. Garden City: Doubleday, 1921.
- Meixner, Laura. "'The Best of Democracy': Walt Whitman, Jean-Francois Millet, and Popular Culture in Post Civil War America." Sill and Tarbell. 28-52.
- Miller, Edwin Haviland. *Walt Whitman's "Song of Myself": A Mosaic of Interpretations*. Iowa City: U of Iowa P, 1989.
- Reynolds, David S. *Walt Whitman's America: A Cultural Biography*. New

- York: Vintage, 1995.
- _____. *Beneath the American Renaissance: The Subversive Imaginat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Melville*. Cambridge, MA: Harvard UP, 1988.
- Sill, Geoffrey M. and Roberta K. Tarbell, eds. *Walt Whitman and the Visual Arts*. New Brunswick: Rutgers UP, 1992.
- Traubel, Horace, ed. *With Walt Whitman in Camden*, vols. 1–3.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1961.
- Whitman, Walt. *Leaves of Grass*. Ed. Sculley Bradley and Harold W. Blodgett. New York: Norton, 1973. [LP로 줄여 표기함]
- _____. *Democratic Vistas*. Ed. Ed Folsom. Iowa City: U of Iowa P, 2010. [DV로 줄여 표기함]
- _____. *Walt Whitman Poetry and Prose*. New York: Library of America, 1996. [PP로 줄여 표기함]

Abstract

Poetry of Presence: Whitman, Visual Arts, and Democracy

Chung, Eun-Gw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re have been a few exceptional reading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merican visual culture and Walt Whitman’s poetry. Many critics, however, do not go deeper into reflecting the complex matrix of Whitman’s poetic language and the effects of visual arts made by his contemporary artists. This essay proposes that Whitman’s encounters with the paintings of Millet and Courbet had awakened in him a sense of realization of poetic democracy. Whitman’s poetic experiments and exploration featured by the notions such as enumeration, repetition, and catalogue can be re-evaluated as ‘poetry of presence’ in which the conjunction between Whitman’s language and painter’s lines and colors creates a very interesting reciprocity. As the cross-disciplinary appeal of Walt Whitman’s language experiments and visual modes of representation, this essay tries to give the prescient observation of Whitman’s transfusion of American democracy beyond the thematic and subjective affinities of Whitman and visual artists.

Key Words: Walt Whitman, visual arts, culture, presence, democracy

월트 휘트먼, 시각 예술, 문화, 현전, 민주주의

논문접수일: 2015.06.03

심사완료일: 2015.06.23

게재확정일: 2015.06.25

이름: 정은귀

소속: 한국외대 영어대학 영문학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문학과

이메일: echung@hufs.ac.kr